

능행 스님 (자재요양병원장)
 “호스피스에 다음세대 준비 위한 봉사
 누구의 죽음도 소외되지 않아요”
 16·17면

금주의 법구-〈법구경〉
 마음은 항상 용감하게
 생각은 항상 신중하게
 행동은 항상 깨끗하고 조심스러워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5월 7일) · 주간

제 995호 2014년 6월 4일 수요일

도난 정보, 경매에 출품 ‘충격’

조계종 문화부 모니터링 ‘적발’… 문화재청·경찰 수사

도난된 정보문화재가 고미술품 경매시장에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와 문화재청, 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은 고미술품 경매사 마이아트옥션이 6월 2일 여는 ‘조선시대 불교 미술 특별 경매’ 출품작을 29일 긴급 조사해 이중 4점을 압수했다.

출품작은 총 18점으로 4점이 도난문화재로 확인됐으며 14점은 추가로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도난문화재로 밝혀진 4점은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충북문화재 제206호, 2004년 5월 도난),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2000년 5월 도난), 청송 대전사 신중도(2000년 9월 도난), 삼척 영은사 영산회상도(1993년 4월 도난)로 제작년도가 각각 1700~1800년도로 경매가가 1억에서 6억원이 매겨진 상태였다. 위 4점은 임시보관처인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상태다.

이번 도난문화재의 환수는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팀이 진행하는 문화재 모니터링 결과다. 문화부는 5월 28일 마이아트옥션의 경매 도록을 모니터링하고 도난문화재로 의심되자 29일 오전 문화재청과 경찰에 신고, 함께 현장에 찾았다.

조계종 문화부장 헤일 스님은 “경매로 나오는 불교문화재에는 도난 문화재가 포함될 수 있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나머지 문화재들도 도난문화재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이번 도난문화재로 확인된 작품 4점을 불교중앙박물관으

로 이송했으며 최종 확인 과정 후 해당 사찰로 돌려줄 예정이다.

불교문화재를 비롯한 고미술품의 경우 경매에 나가기까지는 작품의 진위와 도난품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 작업이 진행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불교문화재의 경우 상경수가 도난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국내 대표적인 미술품 경매사인 S옥션 관계자는 “불교미술품의 경우 사찰에서 작품을 직접 파는 경우가 없기에 도난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조계종 도난품 백서와 문화재청 도

총 18점 중 4점 파악

도지정문화재도 있어

14점도 세밀히 조사 중

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매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마이아트옥션 측은 “도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경매에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두 박물관에서 소장했던 것으로 파악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증과정에서 문화재청의 도난 목록 사진 등에 화기 등이 보이지 않아 확인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이아트옥션은 나머지 작품이 도난 문화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경매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삼척 영은사 영산회상도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청송 대전사 신중도

도난문화재, 위탁인이 소유권 주장한다면?

이번 경매장에서 환수한 4점에 대해 위탁한 이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도난문화재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이다.

문화재청은 2007년 7월 도난 문화재의 거래에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도난문화재나 유실된 문화재라 하더라도 사들인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의 취득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이런 점이 악용됐기 때문이었다. 도난문화재에 대한 선의 취득 예외조항은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내려 확정됐다.

역원이 투입된다.

조계종이 발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10.27법난 기념관은 국가 폭력과 억압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진행하는 기념관과 치유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치유센터로 나뉜다.

‘기념관’은 연면적 20,100㎡(6070평)의 지하 5층, 지상 6층 건물로 전시실, 불교문화체험실, 불교자료열람실, 사무·연구공간, 강당 등이 들어선다. ‘피해자 치유시설’은 연면적 1,418㎡(425평)에 지하 3층, 지하 1층 건물로 물리치료실과 치유시설, 법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조합원 700명이 5월 27일 조계사를 찾아 발원문을 낭독하며 기원하고 있다.

“죽음의 행렬 막아주세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조계사 방문 108배·명상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원 700명이 5월 27일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사를 방문하고 “더 이상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을 막아 달라”며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합원 700명은 조계사 마당에서 발원문을 낭독한 뒤 108염주를 한알씩 꿰며 108배를 했다. 조합원들은 부처님을 향한 발원문에서 “차

별과 탄압 많은 세상을 헤쳐갈 수 있도록 좌절감을 갖지 않고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회사와 대립과 갈등을 넘어 평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이건의 회장의 빠른 쾌유를 빌기도 했다.

108배를 마친 조합원들은 조속한 해결을 기원하는 서원지를 작성해 조계사 대웅전 앞에 매달기도 했다.

이후 조합원 지도부 6명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의 접견 자리에서 “동료들이 또 목숨을 버릴까 걱정이 된다. 부처님은 생명 존중 사상을 설파하셨다고 들었다. 죽음의 행렬을 막고 조속히 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 도움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당연히 삼성전자 직원일 줄 알았던 분들이 법적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은 처음 안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종단이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배현진 기자

국내 最古 11세기 ‘청동바라’ 찾았다

동국대 박물관, 개교108주년 상설전 앞두고 공개

고려 1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바라 두 쌍이 최초로 공개됐다.

국내 현존하는 바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바라 중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곡성 태안사 청동대바라(제956호)’보다 4세기 앞서 보물급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동국대 박물관(관장 정우택)은 5월 27일 “본교 건학 108주년 기념 상설전시실 재개관에 맞춰 수장고 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87년 제작된 고려시대 청동 바라 4점을 새로이 찾았다”고 밝혔다. 청동

바라는 박물관이 1970년 입수해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바라 4점은 각각 지름 30cm 크기로 2쌍으로 3점에는 24자 명문이 새겨져 있다. 명문에는 ‘대안(大安) 3년 음력 7월’에 바라가 제작됐다고 쓰여 있다. 대안은 중국 요(遼)나라 도종(道宗)의 연호이다. 고려 선종 4년인 1087년에 해당한다. 바라의 제작자는 광주목관(廣州牧官)이라고만 적혀 있다.

박물관 측은 “현존 최고의 바라로 확인된 만큼 더욱 세밀한 학술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 박물관은 이번 재개관과 함께



동국대 박물관이 공개한 청동바라.

그동안 보존 관리 문제로 공개하지 않았던 보관 문화재를 상당수 공개했다. 특히 보물 제569호 안중근 의사의 유묵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과 국보 제176호 ‘백자 청화 홍지2년명 송죽무늬 항아리’와 보물 제743호 ‘정조필 파초도’도 등이 눈길을 끈다. (02)2260-3722 노덕현 기자

10.27법난 기념관 건립, 본격 추진

조계종, 기념관 불사 계획안 발표… 조계사 일원 1688억 원 투입 예정

그동안 제자리걸음을 걸었던 10.27법난 기념관 건립 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기념관 불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집행위원장 지현 스님은 5월29일 기자회견을 열고 10·27법난 기념관 사업계획의 세부일정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현 스님은 “10.27

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10.27법난위위)가 5월 28일 제30차 회의에서 조계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총액 1688억 원과 2015년도 예산요구안 541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0.27법난위의 국고예산 의결에 따라 조계종은 오는 7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조

계종의 사업계획서를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국회에서 국고 지원이 확정되면 2015년 기본조사설계, 2016년 실시설계, 2017년 기념관 건축공사 착공을 거쳐 오는 2018년 기념관 완공한다는 게 조계종의 계획이다. 사업 예산으로는 국가보조금 1534억 원, 자부담 150억 원 등 총 1688

995호 INDEX

테마 사찰 기행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12

종합

사찰 장애인 시설 개선 필요
포교원 ‘명상 포교’ 총책 연찬회
맞춤형 템플스테이 ‘아생여당’ 출시
동국대 108주년 기념관 건립

2·3

연중기획 탐·진·치 즐기기 5

학술·문화재 9
용성 스님 탄신 150주년 기념세미나
불교평론 ‘불교와 정치’ 특집

신사찰건축-탄허기념박물관 13

삶은 꿈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개승·선화의 집대성 [포집]
-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